불교학술 논문 발표마당 넓어졌다

학보·논집·교지등 20여종…90년이후 급격히 증가

불교학계의 불교전문 학술지는 약 9종. 이밖에 불교학논문이 주로 발표되는 각종 논총·교지 등을 합하면 20여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90년 이전까지 5종을 넘지 못하던 수준에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불교학계의 연구기관 설립 붐과 학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에 발맞추어 연구실적의 발표마당도 함께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불교학계에서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불교학보〉는 63년 10월15일 제1집을 발행한 후 지금까지 제31집을 내고 있다. 〈불교학보〉는 불교문화연구원 소속 교수·연구원들에게만 논문게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질적으로 높은 연구수준을 유지하며 불교학계를 이끌고 있다.

올해로 학회창립 20돌을 맞이하는 한국불교학회의 〈한국불교학〉은 지난 75년 12월에 창간호를 낸 후 현재까지 제19집을 발간하고 있다. 한국불교학회도 교수, 강사, 박사과정 수료자, 공인연구기관 연구원 이상으로 발표자격을 제한하면서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93년부터 1년에 2차례의 전국 불교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불교학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제까지 제3호를 낸 〈중앙승가대학 논문집〉은 교수 연구논문집으로서 짧은 연륜에 비해 깊이있고 알찬 논문들을 싣고 있다. 지난해 제4집을 낸 국제선무학회의 〈선무(禪武)학술논집〉도 강사급 이상의 회원으로 불교학과 사상·체육·문학·의학 등의 인접학문과의 교류를 시도, 불교학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밖에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가산학보〉, 백련불교문화재단의 〈백련불교논집〉, 영축불교문화연구원의 〈불교문화연구〉, 원효사상연구소의 〈원효사상연구〉, 대한불교진흥원의 〈다보〉, 회당학회의 〈회당학보〉 등도 짧은 연륜에도 불구, 다양한 기획과 주제로 연구업적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

이 중 〈원효사상연구〉는 10집까지 나왔던 〈불교연구〉의 이름을 바꿔 올해 제2집을 낼 계획이며, 〈가산학보〉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제정한 불교와 제과학 관련 '가산학술상'에 의해 추천된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인재 발굴과 불교학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교수·대학원생·학부생들의 논문을 함께 게재, 알찬 논문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는 논집으로는 먼저 2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대 불교대학의 〈동국사상〉과 동국대석림회의 〈석림〉, 동국대 대학원의 〈연구논집〉, 중앙승가대학의 〈승가〉, 해인승가대학의 〈수다라〉 등이 있다.

〈김재경 기자〉

불교여성관등 다뤄 회당학보 3집 발간

회당학회(회장 변종오)의 〈회당학보〉 제3집이 발간됐다.

이번 논집에는 「현대사회의 병리현상 치유와 회당정신」(곽만연), 「천수경과 회당의 심인불교」(김호성) 등 제3회 심포지움 발표논문 5편과, 「불교 여성관의 발전적 모색: 회당의 여성관 검토」(최경아), 「만다라의 이론과 실천」(허일범) 등 연구논문 5편이 수록돼 있다.

근·현대 불교사 조명 해인승가대 '수다라' 10집

해인승가대학의 〈수다라〉 제10집이 나왔다.

이번 〈수다라〉지에는 「화엄경에 나타난 원자물리」(수진), 「유식종의 연기론」(응각), 「떠돌이 놀이패와 사찰과의 관계고찰」(법장), 「불전의 한글 번역을 위한 방법론」(원철) 등의 교수론단과, '근·현대 불교사의 조명'이 특집란으로 다뤄져 있다.

해인사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석주스님이 쓴 해인사 극락전의 주련.

"계율·참회로 다지는 성불의지"

〈극락전〉
自從今身至佛身
(자종금신지불신)
堅持禁戒不毁犯
(견지금계불훼범)
唯願諸佛作證明
(유원제불작증명)
寧捨身命終不退
(영사신명종불퇴)
我昔所造罪惡業
(아석소조죄악업)
皆由無始貪瞋痴
(개유무시탐진치)
從身口意之所生
(종신구의지소생)
一切我今皆懺悔
(일체아금개참회)

지금 이몸 불신이 되기까지 금게 계율을 지켜 추호도 범하지 아니하리니
바라옵건대 모든 부처님께서는 증명하시옵소서.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물러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날 지은 모든 죄악업 들은
하나같이 한량없는 탐진치로 일어났네.
몸과 입과 뜻을 쫓아 생겨난바
모든 죄업을 나 이제 모조리 참회합니다.

해설 전반부는 계율을 철저히 지킴으로 성도의 큰 원력을 이루겠다는 서원이다. 후반부는 기왕에 지은 죄들을 낱낱이 참회하는 간절함이 서린 구절이다.

이 내용은 〈율장〉의 「입지게(立志偈)」이다.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은 매우 많다. 많을 뿐 아니라 그 실천 사항이 철저히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계율을 따로 공부하는 곳을 율원(律院)이라 하는데 해인사의 극락전은 율원의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 주련의 내용중 뒷부분은 천수경을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낯설지 않은 구절일 것이다. 이 참회의 언어들이 율원의 기둥에 새겨져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만하다.

계율을 몸바쳐 지킴으로 성불의 큰 원력을 이루겠다는 각오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모두 씻어 내려는 마음이 에인 이 글귀는 현재 삼청동 칠보사의 조실인 석주(昔珠)스님의 글씨다.

〈안동 경안중 교사〉

경허·한암스님 정혜결사정신 계승

'권수정혜결사문' 대승경전·선어록 인용

◇김호성씨

◇고희숙씨

김호성·고희숙씨 밝혀

보조 지눌의 정혜결사를 계승한 경허와 한암의 결사에 대해 조명한 논문과 「권수정혜결사문」에 나타난 인용문의 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보조의 선사상을 고찰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의 〈보조사상〉 제8집에 게재될 김호성씨(청주대 강사)의 「결사의 근대적 전개 양상: 정혜결사의 계승을 중심으로」와 고희숙씨(한국국제협력단 연구자료실)의 「권수정혜결사문에 나타난 보조선사상의 고찰」이 바로 그것.

이 두편의 논문은 소장학자들에 의해 씌여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최근 새로 발견된 한암의 결사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경허와 한암의 결사운동을 조명한 점,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에 나타난 인용문의 정확한 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보조의 선(禪)사상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성씨는 논문에서, 경허는 보조의 정혜쌍수를 근본이념으로 하면서도 정혜결사의 정토신앙 대신 미륵신앙을 추구해 독창적 변용을 시도했으며, 한암은 고성염불을 비판하면서도 유심정토설에 입각한 염불선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염불·참선이 둘이 아님을 제시하고 보조의 선교겸수의 가풍을 계승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허와 한암의 결사가 모두 '수행운동·개혁운동'이란 점에서는 보조의 정혜결사에 비해 손색이 없으나, '개혁운동·공동체운동'이란 성격은 현저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보조전서(普照全書)」의 종지라 할 수 있는 '선교일원·정혜쌍수(禪敎一元·定慧雙修)'의 사상적 배경을 분석한 고희숙씨는 "보조국사는 「권수정혜결사문」에 33종이나 되는 많은 경·논(論)·어록을 62회나 인용하면서 그 논지를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권수정혜결사문」의 인용문을 중심으로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원전의 출처를 밝히고 가장 많이 인용된 문헌별로 내용을 살펴본 후, 기존 연구와 비교해 인용문헌의 특징을 파악했다. 고씨는 이들 문헌들이 대부분 대승경전이나 주요 선승들의 어록이라고 밝혔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통 밖으로 나와야' 하는 의미는

문 스님의 말씀 가운데 '통 밖으로 나와야 통을 굴릴 수 있다'는 대목이 있었는데 실참의 경우 어떤 경지를 가르치고자 하심인지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최미희)

답 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말합니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의식·사량분별, 고정관념 등 우리가 '나'라고 생각할 때의 의식세계를 이름이지요.

내가 나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 준 것, 나의 것, 나에게 이로운 것 불리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하는 식으로 우리는 매사에 나를 앞세웁니다. 아니 앞세우기 보다는 그런 의식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상·아집·아만으로 억눌려있는 사람을 통 속에 갇힌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지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 밖으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한생각 넓게, 지혜롭게, 자유롭게 활달할 수 있다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밖으로 나가야 통을 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이 '나'를 전제로한 굴레에 묶여 있고서야 어찌 나를 자유자재로 굴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작용에 내가 갇혀 있으니까 그로부터 벗어나야 자유자재한 대권을 쥘 수 있겠지요. 그게 해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벗어나야지! 한다면 그것 역시 벗어나겠다는 굴레에 묶인 것이니 지금 그대로 살아가는 과정속에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마음내기 이전 마음을 관해보기 바랍니다.

어느 스님의 '급하다 급해' 뜻은

문 옛부터 전해져오는 이야기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마곡사에 한 노스님이 계셨는데 평소에 늘 입버릇처럼 "급하다 급해"하셨고 가끔 방에서 대변을 보아 사방벽에 문지르는 기행을 보이셨습니다. 노스님 다비식 때 시봉스님이 그일을 생각하고 혼잣 말로 "스님 지금도 급하십니까?" 했더니 불속의 노스님께서 주먹을 불쑥 내밀며 호령하시기를 "급하다 이놈아!"하셨답니다. 노스님께서는 무엇을 일깨우고자 하심입니까? (충남 공주시 신관동·최용호)

답 이왕 공부길에 들어섰으면 삼천대천세계를 다 집어 삼키는 자유자재권을 거머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스님께서는 이 공부가 머리에 불붙은 것을 끄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노스님 보시기에 제자들은 한가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어느 겁에 이 공부를 마칠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을테고, 저러다가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는 커녕 억겁을 두고 육도윤회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셨겠지요. 그러니 어찌 "급하다 급해"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노스님의 입버릇엔 자비가 철철 넘쳐흐르는군요.

또 대변을 사방 벽에 쳐바르신 것은 회향하는 도리를 일러주신 우뢰같은 법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서 빨리 공부해서 삼천대천세계를 삼켜야 하고 삼켰으면 소화해서 다시 내놓는 경지를 터득해야 하느니라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도리를 깨닫고 나서는 중생에게 이익되게 회향해야만 할 일을 마치는 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듯이 마음도리를 깨우치고 회향할 줄 알아야 하니 이 일이 얼마나 급한 일이겠습니까? 삼키는 일도 급하고 삼키고 나서 되내놓는 일도 급하고 급합니다.

불경에 33천만 언급한 이유는

문 어떤 사람이 제게 "불교는 기독교보다 완벽하지 못하다. 왜냐? 성경에는 35천이 있는데 불경에는 33천까지 밖에 없으니 우주를 다 간파하지 못했지 않느냐?" 했습니다.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 동구 좌천3동·김신환)

답 옛 이야기 하나 해드리지요. 어떤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하룻밤 잠자리를 청해 들었는데 마침 한 노스님이 먼저 유숙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방바닥에 백지를 펴놓고는 정좌한 채로 백지만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가 오래 지켜보아도 그 모습 그대로인지라 답답하고 궁금한 생각에 물었습니다. "아니, 노스님께서는 어찌해서 글 한 줄 없는 백지를 보고 계십니까?"하니까 그 노스님 말씀이 "자네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과거를 치룰 수 있네"하시더랍니다. 그리고는 "과거 보는 데만이 아닐세, 백성을 제도하자면 역시 백지를 볼 줄 알아야 하네"하셨답니다.

이 선비는 제법 학문이 깊은 사람이라 어렵풋이 뜻을 헤아렸지만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는데 그날 밤 꿈에 노스님이 나타나서 그 뜻을 이러저러 일러 주었답니다. 어사 박문수의 이야기입니다만 매사를 형상으로 보고 형상에 걸리면 정신계와 물질계를 어찌 넘나들 수 있겠습니까.

마음공부도 단계가 있는지요

문 어디선가 마음공부하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지요?

(경기 군포시 당동·류대경)

답 탑을 쌓으려면 돌을 하나 갖다놓고 또 하나 갖다놓고 하면서 다 쌓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쌓아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봉우리를 올려 놓게 됩니다. 하나 더 쌓았다, 덜 쌓았다 할 것없이 그냥 쌓아 올리는 것이지요.

마음공부 하는데 한 계단 올라섰다, 내려섰다 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은 걸림없이 돌아가는데 무슨 계단입니까. 동쪽이다 하면 곧 서쪽이고 서쪽이다 하면 곧 동쪽이듯이 마음자리도 고정되게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성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게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조문객 -접대음식- 육개장·대구탕 外 / 콩어묵·전유어·묵어찜 등 이조 924-9211 과방 925-4961 소모품 제공·봉사요원 파견

연꽃방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8-3933 (자택)934-1748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그·하여 우송하겠습니다.

단청·불상·탱화·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문의처: 467-8329 ■호출기: 012-307-8329 박석언 합장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사내·지방·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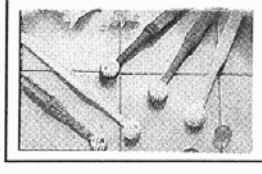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 645-6224 대구: 952-8711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소매, 초, 향, 촛대, 각종 유기 도자기, 염주, 목탁, 테이프, 개금, 단청, 불상, 탱화, 승복, 법복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9-2450

(주)미래 케이블 TV Future's Cable Television, Inc. 중앙대리점 불교 케이블 TV 가입문의 환영 張載豪 서울 특별시 도봉구 창1동 662-41(대창빌딩 3층) TEL.(02)992-4777~8, (02)991-3167~8 / FAX.(02)992-4778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출판 윤주사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30-9372~3 ·FAX (02) 723-0646

첫솜의 기술혁신

빙글빙글 360도 돌면서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준다! 그래서 특허품! (02) 556-3076~7

안내 귀의 심보하옵고 전국 저반 고승대덕 큰스님 법체청안하시옵고 불사 순조로우신지요. 아뢰올 말씀은 본인이 다년간 부동산업계에 근무하면서 쌓은 지혜를 스님들께서 사찰 포교당 창건 및 이전하시고자 하는 중은 징소를 찾으시는데 스님들이 직접 하시기 힘든 부분에 저희가 손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인연 맺어주시면 부처님의 크신 가피로 알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청송기획 대표전화 (02)998-1994 호출 012-271-5634 팩스 (02)998-1994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404-9521 팩스: (02)266-267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주식회사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합천(해인사) 대적광전·법상·경상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화천(법정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성남(법륜사) 대웅전 문짝 닫집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판
·타산(진관사) 대웅전 수미단 용각
·고산(학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판탁경상
·서울(학림사) 화엄 불사, 그외 다수 시공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택 02-248-4609 공장 0346-571-9538 호출 012-210-1401 趙貴王 합장